

##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유해 발견 관련 발표 및 교구장 교령’

### 참고 자료

#### <목 차>

1. 간추린 한국 천주교회사 연표 .....	1
2. 순교자(殉敎者)란 .....	3
3. 시복(諡福), 시성(諡聖)이란 .....	4
4. 성인(聖人)이란 .....	6
5. 복자(福者)란 .....	7
6. 유해(遺骸)공경 .....	7
7. 복자 유향검 아우구스티노 .....	8

## 1. 간추린 한국 천주교회사 연표

- 1779년 겨울 주어사에서 강학 중 천주교 교리에 대해 토론
- 1784년 2월 이승훈 북경 북당에서 예수회원 그라몽 신부로부터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성사 받음 - 이승훈 세례(첫 세례자)
- 1784년 10월 한국천주교회 창설, 이벽의 집에서 이승훈 주도로 첫 번째 세례식 거행 - 한국천주교회 창설
- 1791년 12월 8일 신해박해. 윤지충과 권상연 전주에서 참수 순교. 최초의 순교자
- 1794년 12월 24일 한국에 입국한 최초의 신부인 주문모 의주를 통해 입국
- 1795년 6월 28일 주문모 신부 체포 실패로 을묘박해 일어남. 윤유일, 지황, 최인길 포도청에서 장살
- 1801년 1월 신유박해. 최필공이 체포되면서 박해가 시작됨
- 1801년 5월 31일 주문모 신부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으로 순교
- 1801년 10월 24일 호남의 사도 유항검과 동료 전주 남문밖에서 순교
- 1815년 4월 1일 을해박해 일어남. 경상도 북부 교우촌에서 71명이 체포되고 이 가운데 14명이 순교
- 1827년 2월 전라도 곡성 지방에서 정해박해 일어남. 16명 순교
- 1831년 9월 9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 조선 대목구 설정. 파리 외방전교회 브뤼기에르 주교가 초대 조선 대목구장으로 임명됨 - 조선 대목구 설정
- 1836년 1월 12일 모방 신부 조선 대목구장 직무대행으로 의주 변문을 거쳐 조선 입국, 서양 선교사로서 최초로 조선 입국에 성공
- 1836년 12월 3일 유 파치피코 신부 조선인 신학생 최양업, 최방제, 김대건과 함께 조선 출발
- 1839년 1월 16일 권득인이 체포되면서 기해박해 일어남
- 1839년 9월 21일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새남터에서 순교. 페레올 주교 제 3대 조선 대목구장 승계
- 1841년 8월 22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 앵베르 주교의 청원을 들어 조선의 주보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허락 - 한국 주보성인 허락
- 1845년 8월 17일 김대건 부제 김가항 성당에서 조선인 최초로 사제 서품 - 한국인 최초의 사제서품
- 1845년 10월 12일 김대건 신부, 페레올 주교, 다블뤼 신부, 나바위에 도착
- 1846년 6월 5일 서해 해로를 통한 선교사 입국로를 탐색하던 김대건 신부가 순위도에서 체포됨으로써 병오박해 시작됨
- 1846년 9월 16일 김대건 신부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
- 1866년 2월 23일 베르뇌 주교와 홍봉주 체포로 병인박해 일어남
- 1866년 3월 7일 베르뇌 주교, 브르트니에르, 도리, 볼리외 신부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 다블뤼 주교 제5대 조선 대목구장 승계
- 1866년 9월 병인양요 발생. 프랑스군의 1차 침공으로 로즈 제독이 조선 서해안을 정찰하며 한강을 거슬러 서강까지 올라옴
- 1868년 5월 독일 상인 오페르트에 의해 남연군묘 도굴을 시도한 덕산 굴총 사건 발생.

## 무진박해 일어난

-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로 서양 국가에 문호 개방
- 1886년 6월 4일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나가사키 성서 활판소 서울 정동으로 이전
- 1893년 4월 23일 한국 최초의 서양식 벽돌조 성당인 약현 성당 축성
  - 최초의 성당 축성(약현성당)
- 1896년 4월 26일 한국에서 최초로 사제 서품식이 거행되어 강성삼, 정규하, 강도영 신부
  - 한국 최초의 사제서품
- 1904년 6월 프랑스 공사 플랑시와 외부 대신 이하영 사이에 선교조약 체결
- 1906년 10월 19일 경향신문 창간
- 1911년 4월 8일 조선 대목구를 서울 대목구로 개칭하고 대구 대목구 분리 설정. 초대 대목구장에 드망즈 신부 임명
  - 대구 대목구 분리
-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 베드로 대성전에서 한국 순교자 79위 시복식 거행
  - 79위 시복식
- 1925년 9월 26일 조선 대목구 설정 100주년 기념식 거행
- 1937년 4월 13일 전주 지목구 설정. 초대 지목구장으로 김양홍 신부 임명. 한국 최초의 자치교구 설정
  - 최초의 자치교구 설정(전주)
- 1942년 12월 20일 한국인 최초의 주교 서울 대목구장 노기남 주교 서품식 거행
  - 최초의 한국인 주교 서품
- 1942년 10월 12일 초대 교황사절 번 신부의 귀국 환영 미사를 명동 성당에서 거행
  - 초대 교황사절
- 1962년 3월 10일 한국 교회 정식 교계제도 설정
  - 한국 정식 교계제도 설정
- 1965년 1월 1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 우리말 미사 집전
- 1968년 1월 개신교와 공동으로 신구약성서의 공동번역 작업 시작
- 1968년 10월 6일 바티칸에서 병인박해 순교자 24위 시복식 거행
  - 24위 시복식
- 1969년 5월 20일 김수환 대주교 추기경 승품
  - 한국인 첫 추기경(김수환)
- 1974년 9월 26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명동성당에서 제1차 시국선언 발표. 천주교 신자 100만명 돌파
- 1981년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행사 개최
  -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 1981년 11월 한국 외방선교회가 파푸아뉴기니로 선교 사제 4명을 파견함으로써 한국 교회 최초로 해외 선교사 파견
  - 최초의 선교사 파견
-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집전으로 한국 천주교회 설립 200주년 기념식 및 한국 순교복자 103위 시성식 거행 -103위 시성식
- 1989년 10월 5-8일 제44회 세계성체대회 서울에서 개최. 10월 8일 교황 요한바오로 2세 집전으로 여의도에서 미사 집전
- 2014년 8월 10-13일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개최. 교황 프란치스코 방한
- 2014년 8월 16일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과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 광화문 광장에서 교황 프란치스코 집전
  - 124위 시복식

## 2. 순교자(殉敎者)란

신앙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 '증인'을 뜻하는 그리스어(martus)에서 유래한 말이다. 순교란 자신이 신봉하는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 바치는 행위를 말한다. 전에는 이를 치명(致命)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준 믿음, 즉 신앙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생명을 내놓은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2세기 중엽부터 교회는 재판소에 끌려가서 말씀의 증언을 하고도 죽지 못한 자를 증거자(證據者), 피로써 증언한 자를 증인(證人, Martyres)이라 불렀는데, 이 후자의 경우를 순교자라 한다.

### 3. 시복(諡福), 시성(諡聖)이란

1. 의의 : 시복 시성이란 성덕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나 순교자에게, 탁월한 신앙의 모범을 본받고 공적인 공경을 바칠 수 있도록, 복자(福者)나 성인(聖人)의 품위에 올리는 예식을 말한다.

2. 조사 : 먼저 고인의 성성에 대한 명성이 높아지면, 지역 주교는 시복 준비 조사 위원회를 결성하여, 교황청에 시복 조사를 건의하기 위한 일반 자료 조사 과정을 시작한다. 고인의 언행, 저서, 기적 사례 등을 엄밀히 조사하여 교황청 시성성에 보고한다.

그 후 교황의 조사에 대한 허락이 있으면, 교황청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이때 시복 대상자에게 가경자(可敬者)<sup>1)</sup>라는 존칭이 주어진다. 그런데 시복 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법에서는 순교 사실만 확인되면 순교자는 기적 심사가 면제되도록 하였다.

3. 시복 : 덕성이 확정되고 그분을 통한 기적이 두 가지 이상 있으면, 의사나 병리학자 등이 기적에 대하여 확실히 검토하며, 기적이라는 것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관계 전문가들의 조사와 재판을 계속한다. 그리고 기적이 확인되면, 교회는 그를 복자로 선언(諡福)한다.

4. 시성 : 그 후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인정될 때, 그를 성인으로 선언(諡聖)하고 의식을 행한다. 시성은 복자에 한해서 행해진다. 그리고 복자는 그 공경이 어느 지방이나 단체에 한하나, 성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든지 공경하게 된다. 그런데 시성은 교황만이 할 수 있는 무류성의 행위이다.

5. 축일 : 또한 미사 경본이나 사제의 성무 일도에 기도문이 삽입되고, 전례력에 축일이 도입되며, 성체 행렬에서 그 유해를 공경하게 된다. 성인들의 축일은 대개 사망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례를 받는 자들은 이날을 영명 축일로 정하게 된다.

6. 한국 순교 성인 : 한국 교회는 1857년 처음으로 82명의 가경자를 갖게 되었으며, 그중 79명이 1925년에 시복되었고, 1984년에 시성되었다. 한편 1866년 병인 박해 순교자 중 24명이 1968년 시복되었고, 1984년에 시성되었다. 이때는 새 교회법의 반포로 가경자의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이는 시성 시복의 간소화로 가경의 의의가 약화되었다.

1984년 한국 천주교 설립 200주년을 맞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내한하여 한국 순교 복자 103위를 시성하였다. 물론 순교자이기에 기적 심사는 면제되었으며, 아비뇽 교황 시대를 제외하고는 교회 사상 처음으로 교황청 밖에서 시성되었다.

---

1) 시복(諡福) 후보자에게 잠정적으로 주어지는 존칭. 시복 조사가 교황청 예부성성에 접수되면 시복 후보자에게 이 존칭이 주어진다. 한국 천주교회는 1857년에 처음으로 82명의 가경자를 갖게 되었다.

로마가톨릭교회의 교황이 이미 시복(諡福)된 복자를 성인의 명부에 올리고 전세계 교회로 하여금 그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을 말한다.

시성은 이미 시복되어진 복자(福者)에 한해서 행해진다. 시복에 이어 그 복자의 전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보고되면 심사는 재개되고 시복과정이 시성을 위해 반복된다. 시성이 결정되면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엄숙한 시성식이 열리고 교황은 시성선언을 통해 그 대상자가 영원한 광명 속에 있으며 세계 교회는 그에게 성인에게 합당한 공적 공경을 바칠 것을 명하게 된다.

성인은 복자와는 달리 전세계 교회에 의해 공경된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1984년 한국 천주교 창설 200주년을 기념하여 사목 방문차 내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한국 순교복자 103위가 시성되었는데, 아비뇽 교황 시대를 제외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 교황청 밖에서 시성식이 거행되었다.

#### 4. 성인(聖人)이란

가. 의의 : 성인은 일반적으로 지혜와 덕이 뛰어나, 길이 본받을 만한 사람을 일컫는다. 가톨릭에서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자를 말한다. 이는 하느님을 직접 뵈옵고 복락(至福直觀)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들은 하느님께 대한 영웅적인 덕행을 실천한 자들이기에, 교회에서는 모든 신자들의 귀감으로 선언하고 존경하도록 공식적으로 성인의 품위에 올린다.

나. 유래 : 성인의 공경은 초대 교회 때부터 순교자를 공경한 데서 시작되었다. 박해 시대에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한다는 것은 최대의 영광이었다. 그래서 5세기경에는 이름 앞에 ‘성(聖)’자를 붙이기 시작하였고, 그 후 거룩한 성품을 찬양하고 덕행의 위대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성인의 호칭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토록 하였다.

다. 공경 : “지상 여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치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것과 같이, 성인들과의 일치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켜 주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친구요 공동 상속자들이며 우리의 형제요 탁월한 은인들인 성인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기 위해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기도와 도움을 바라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교회 헌장 48~50항 참조).

성인에 대한 공경과 그들과의 참다운 교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께 바치는 흠숭<sup>2)</sup>을 약화시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완전하게 할 것이다. 진정한 성인 공경은 우리의 행동적 사랑의 깊이에 있으며, 이런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성인들의 생활에서 모범을 찾고 통공<sup>3)</sup>에서 일치를 찾으며 전구<sup>4)</sup>에서 도움을 찾아야 하겠다(교회 헌장 51항).

---

2) 欽崇, 하느님께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행위. 흠숭은 기도와 찬미, 희생과 봉헌 등을 표현하는 몸과 마음의 전인적인 행위로 나타난다. 흠숭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성인전구(聖人轉求)의 효력을 선포한 제2차 니체아 공의회가 성인들에게 드리는 ‘공경’(恭敬, veneratio)과 하느님과 그리스도께 드리는 흠숭(adoratio)을 구별하여 규정한 적이 있다(교회헌장 66).

3) 通功,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공로(功勞)를 서로 나누고 공유함을 뜻한다.

4) 轉求,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간청하고 탄원하는 행위로서, 어떤 사람의 바람이 성모 마리아나 천사 또는 성인들의 도움으로 하느님께 전달되기를 청하는 기도.

## 5. 복자(福者)란

가톨릭 교회가 시복(諡福, 복자로 추대함)을 통해 신자들의 공경의 대상으로 공식 선포한 사람. 남자는 복자, 여자는 복녀라 한다. 복자가 시성(諡聖, 성인으로 추대함)되면 성인(여자는 성녀)이 된다. 복자는 위의 시복과정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므로 공식으로 공경할 수 있으며, 다만 성인과 다른 점은 그 범위가 어떤 지역이나 단체에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는 한국에서만 공경이 가능하다.

## 6. 유해(遺骸)공경

유해는 세 가지 의미로 이해된다. 첫째, 유해는 성인이나 복자의 몸이나 그 일부를 가리키며 제대석에 안치된다. 둘째, 유해는 옷과 같이 성인이 사용한 물건이나 순교 때 사용된 도구를 가리킨다. 셋째, 유해는 유해에 직접 닿은 옷과 같은 다른 대상물을 가리킨다. 진정한 십자가 유해와 그리스도의 수난 때 사용되었던 다른 도구들도 보존되어 있으며 교회의 허락을 받아 이들을 공경할 수 있다.

현행 교회법 제2편 제4장에서 지적하듯이 모든 유해 공경은 합법적이다. 성인들의 유해에는 공경지례만 가능하며, 사물이 아닌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 중요한 유해는 성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구히 이전될 수 없고, 거룩한 유해는 판매할 수 없다(교회법 1190조).



## 7. 복자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복자 유항검(柳恒儉) 아우구스티노는 1756년 전주 초남이(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에서 양반인 아버지 유동근과 안동 권씨 권근의 후손인 어머니 권조이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유항검 집안은 양반이면서 본가와 외가, 처가까지 모두 남인(南人)이었고,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호였으며 덕망 또한 높았다. 그는 복자 윤지충 바오로의 이종사촌이며,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 복자 윤지충 바오로에게서 교리서적을 빌어 보고는 이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권일신(權日身)을 찾아가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가성직제도<sup>5)</sup>에 의해 신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는 고향에서 전교에 온 정열을 쏟아 호남지방 교회 창설의 초석이 되었으므로 '호남의 사도'(使徒)로 불리게 되었다. 가성직 제도가 교리에 어긋나며 독성행위(瀆聖行爲)가 됨을 깨닫고 이를 시정키 위해 북경주교에게 문의편지를 내게 한 것도 그였다. 이렇게 해서 주문모(周文謨) 신부가 입국하여 지방에 내려왔을 때에는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여 함께 전교에 힘썼다.

따라서 1801년 신유박해 때 전라도지방에서는 그가 제일 먼저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는 형조의 심문에서, 외국인 신부의 입국을 도와 내통하였고, 사교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에 청원서를 냈다는 죄목으로 대역부도(大逆不道)죄를 적용하여 능지처참의 사형언도를 받았다. 그리하여 전주감영으로 다시 이송되어 1801년 10월 24일 참수되었는데 그의 나이 46세였다. 부인 신희(申喜), 큰아들 유중철(柳重哲), 며느리 이순이(李順伊), 둘째 아들 유문석(柳文碩), 동생 유관검(柳觀儉) 등이 처형되었다. 나이 어린 세 자녀는 유배되었다.

---

5) 초기 한국 천주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성직자의 고유한 성무(聖務)를 집행했던 제도. 한국 천주교회 창설기인 1786년부터 1787년경까지 이승훈(李承勳, 베드로), 권일신(權日身,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유항검(柳恒儉, 아우구스티노), 홍낙민(洪樂敏, 루가) 등 10여명의 지도급인물들이 약 2년간 신품(神品)을 안받은 채 사제(신부)로서 미사성제(聖祭)를 드리고 고해(告解) 등 각종 성사(聖事)를 집전하였다.

이 제도는 이벽이 북경에 가서 직접 성직자들의 성사 집행광경을 보고 온 이승훈에 의해 교회발전책으로 제의되어 채택되었다. 그러나 유항검이 교리서(敎理書)를 자세히 연구하여 본 결과 신부의 자격과 신부를 임명한 것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하여 큰 의심을 품게 되어 성사를 중단하고 북경주교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문의하는 편지를 쓰기로 결정하였다. 1790년 윤유일로부터 북당 선교사들의 회답을 받을 수 있었다. 이 회답에서 선교사들은 성사를 마구 집전한 것을 무지로 돌리고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정한 통회로써 구원을 얻도록 노력할 것이고, 구원의 가장 확실한 길은 성직자를 영입하는 것이므로 그 조속한 실현을 권고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평신도들은 신품성사를 받은 성직자가 교회에 필요함을 비로소 인식하고 북경교회에 선교사파견을 요청하기 위해 윤유일을 다시 밀사(密使)로 북경에 파견하게 되었다.